

한국치즈과학고 맞춤형교육 실시

임실군, 도내 유일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교육부 지원 사업비 35억원 확보

임실군의 치즈산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가 교육부가 선정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가 치즈와 미생물(바이오) 분야 지역인재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교육부 주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기반 산업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유관기관 등이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산업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부의 새로운 정책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한국치즈과학고는 협약형 특성화고 교육 플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35억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올해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은 총 3단계로 진행됐다.

전국적으로 총 37개 학교가 신청한 가운데 1단계를 통과한 20개 학교 중 최종적으로 10개 학교가 선정됐다.

임실군은 한국치즈과학고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육성하여 지역 대표산업인 치즈산업을 이끌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한발 더 나아가 학생들이 관내 기업에 취업, 지역 내 정주까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25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치즈과학고, 임실군, 유관기관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부 공모사업에 다 함께 뜻을 모아 대응해 왔다. 한국치즈과학

고는 '임실과 함께 움직는 치즈명장, 세계로 꽃피울 지역인재'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세부 교육 커리큘럼으로는 치즈 개발·제조 모듈형 프로젝트 수업(캡스톤 디자인모델)과 마을과 함께하는 생활실습실(리빙랩모델), 교육-취업-후학습-정주위한 산학공동교육모델, 학교기업 운영(푸드는 치즈N스쿨) 등을 제시했다.

심 민 군수는 "한국치즈과학고가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됨에 따라 임실 치즈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치즈산업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정주 인구까지 늘릴 수 있는 지역 내 향토 자원을 활용한 선순환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전북자치도·코스맥스 등과 바이오산업 육성 협약

7개 기관 협력방안 모색

남원시는 지난 20일,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주)코스맥스,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식품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원광대학교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도청 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바이오산업 육성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7개 기관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연계협력 △바이오투자 R&D 조

성을 위한 공동협력 △국내외 주요 바이오기업 기술 동향 공유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코스맥스는 지난 2014년 설립되어 화장품 연구 및 개발하고 생산하는 화장품 ODM 전문기업으로 글로벌 뷰티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남원시는 지리산권의 자원식품 라이브리 및 화장품 산업 인프라 구축에 힘써 우수화장품제조시설(CGMP), 천연물화장품원료생산시설, 코스메틱 비즈센터 등 명실상부 전북 내 화장품 산업 집적화 단지로 자리잡아 이번 협

무협약을 통해 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뷰티&헬스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 그동안 남원시가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바이오 산업의 신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바이오산업은 미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산업으로 남원시는 기존 산업구조를 탈피하여, 바이오소재 개발의 고도화와 공중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쉼랜드, '웰니스관광지에 이어 치유관광지 선정' 잇따른 쾌거

'치유음식분야' 10선 선정

순창 쉼랜드가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데 이어, 최근에는 전북도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선정하는 '2024년 전북 치유관광지 10선'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21일 순창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도내 26개소의 관광지가 신청하여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3차 현장평가에 걸친 치열한 경쟁 끝에 순창 쉼랜드가 치유음식, 자연/치유, 힐링/명상, 한방, 전통/생물문화 등 5개 테마 중

'치유음식분야'로 '도내 치유관광지 10선'에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치유관광지는 여행이나 문화를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관광지로서, 쉼랜드는 지역 내 특산물 또는 자연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음식 체험 등 맛있는 힘이 있는 체험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조성중인 쉼랜드는 49만㎡(15만평)규모로 치유체험을 위한 다양한 체험공간 및 요리실습실, 힐카페, 1인1실 숙소동, 황토 방갈로, 찜질방, 명상관, 편백 숲 등을 조성하고 특색

있는 명품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 선정으로 명실공히 치유체험의 최지점임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공고히 하게 됐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쉼랜드는 900만 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프로그램 고도화 및 상품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국내외 박람회 홍보 참가, 언론 홍보 등 치유관광 홍보마케팅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영일 군수는 "해발 300여 미터 산속에서 고즈넉이 자리한 쉼랜드는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고 힐링할 수 있는 최고의 치유시설임을 자부한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가 농림축산식품부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선정

남원시, 농식품부 총 200억원 확보... 농생명 바이오 6차산업 육성 '탄력'

남원시가 농림축산식품부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국·도비 130억원을 포함 총 2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농생명 바이오 6차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곤충 생산·가공시설, 유통시스템 구축 등 지역단위 곤충산업의 거점화 및 규모화 체계를 구축하고자 농식품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서면 및 현장·발표평가를 거쳐 2022년 예선, 2023년 춘선에 이어 전국 3번째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사매 일반산업단지에 2028년까지 200억원을 투자해, 종합컨트롤센터, 전처리 및 가공센터, 입대형스마트팜과 사육지원시설 등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곤충지원의 활용범위가 대체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소재 등으로 크게 확대되고 곤충산업을 바이오산업으로 육성하는 정부 정책에 부합해 곤충산업을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시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전담조직(곤충산업TF팀)을 신설하고, 대학, 기업,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

등 연구기관과 함께 산·학·관·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식품, 바이오, 펫푸드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곤충산업 활성화에 노력해 왔다.

올해에는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주)죽이아기 등 5개 국내 우수 기업체와 관로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으며, 공공건축 사업계획수립,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연말 실시실계에 착수하여 내년 하반기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특히, 본 사업을 통해 현재 농가 중심형 곤충 생산·유통 구조에서 종충관리 및 원종공급→입대형 곤충스마트팜(대량생산)→전처리(1차가공)→전분업체(2차가공)→기업 제품생산(판매(식품, 펫푸드, 사료 등))으로 이어지는 공급망을 구축해, 기존 곤충산업구조를 탈바꿈할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곤충산업을 남원의 대표 농생명 바이오 6차산업으로 육성, 미래 먹거리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농가 소득을 높여 청년, 귀농·귀촌·귀환인 등을 적극 유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읍, 20여 년 미개통된 통학로 인도 개설

임실읍이 20여 년간 미개통된 통학로 인도를 개설하여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안전과 함께 편안함을 제공했다. 이곳은 임실읍 이도리 716-1번지 일원으로 도시계획도로 구간이며, 약 40m 구간에 인도가 없어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과 주민들에게 이용 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주민들은 그동안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임실읍은 2024년 2월 통학로 개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폭 2.0m는 공익사업 편입부지로, 나머지 면적은 연접 토지주에게 소개해 주었으나 매입의

사가 없어 제3자에게 소개해 주지 못해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 지역은 임실동중학교와 학생들이 많아 통학로 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인도 개설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과 안전사고 없는 거리를 조성하게 된 것이다.

이번 인도는, 도로 부분까지 확인해 본 결과 임실소도읍을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도시계획도로 노선 2개소에 대한 토지합병까지 찾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계기가 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 밀양아리랑대축제서 관광객 대상 홍보부스 운영

순창군과 (재)순창발효관광재단이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경남 제66회 밀양아리랑대축제에서 축제를 찾은 관광객 대상으로 순창장류축제와 순창 여행정보를 홍보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과 이벤트를 펼칠 순창군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홍보부스 운영은 경남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밀양아리랑대축제를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순창군 출연기관인 (재)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 선운숙)과 (재)밀양문화관광재단(대표 이치우)이 협력해 마련됐다.

축제를 찾은 관광객에게 제19회 순창장류축제와 발효관광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를 홍보하고, 관광 홍보물 배부와 설문 조사를 통해 미니 고추장과 캐리터 상품 등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3% 할인 혜택

임실군이 상수도요금 납부 시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월 부과금의 3%, 5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이체는 매월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고지서 훼손 및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납부자의 수고까지 덜어줄 뿐만 아니라 월 부과 금액의 3%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부제도이다. 신청은 당월 고지서와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임실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매월 확인하여 대상자가 상수도요금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실군에 거주하지 않거나, 고지서 수령이 어려운 수용가는 문자 고지를 신청하면 매월 수도요금을 문자로 받아 가장제자로 납부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벨기에 출신 지명인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